반려동물 연관산업 및 교육 발전 방향 심포지엄

일 시 | 2026년 9월 18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송도 컨벤시아

주 최 | (사)반려동물 연관산업 협회

(사)한국스마트펫기술산업협회

후원 | (사)한국펫사료협회

프로그램

일시(소요시간)	주요 내용	발표자(소속기관)
10:00~10:05 (5분)	내외빈 소개	김영태 (한국스마트펫기술산업협회)
10:05~10:10 (5분)	축사	김상덕 (한국펫사료협회장)
10:10~10:15 (5분)	축사	정선옥 (한국스마트펫기술산업협회장)
10:15~12:00	**심포지엄** *** 좌장: 정선옥 한국스마트펫기술산업협회장**	
10:15~10:30 (15분)	반려동물연관산업법률제정과 반려동물연관산업 교육	조성호 (반려동물연관산업협회)
10:30~10:45 (15분)	반려동물연관산업현장과 반려동물연관산업교육	도성호 (오산대)
10:45~11:00 (15분)	특성화고등학교에서의 반려동물연관산업교육	오창익 (전북펫고등학교)
11:00~11:15 (15분)	반려동물연관산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컨텐츠 개발의 필요성	추교문 (인제대)
11:15~11:30 (15분)	재학생 입장에서 반려동물연관산업교육 활성화 방안	최정욱 (원광대)
11:30~11:55 (25분)	반려동물연관산업과 교육활성화 발전 방향 논의	참석자 전원
11:55~12:00 (5분)	기념촬영	
	마무리	


반려동물연관산업협회
반려동물연관산업육성법과
반려동물연관산업교육의 연결
학교 · 산업 · 자격 · 취업을
하나의 성장경로로 엮는 정책 설계.
조성호 변호사
(사) 반려동물연관산업협회장
2026. 9. 18.
(사) 반려동물연관산업협회
01 / 20


목차 · AGENDA
오늘의 발표 — 학교 · 산업 · 자격 · 채용을 잇는 길
법은 만들었습니다 — 이제 학교 · 산업 · 자격 · 취업을 하나의 성장경로로 엮겠습니다.
01 도입
표지 · 목차 · 현장의 현실 · 4가지 개선점
01 — 03
02 법적 기반
법률 목적 · 법적 근거 · 제 12조 전문
04 — 09
03 미완성 지점
법의 교육 공백 — 다음 정책과제
10
04 산학협력 모델
제조 · 식품 · 미용·면허 5가지 결
11 — 13
05 차이점 분석
제조·식품 vs 반려동물 — 5 layer 결합 설계안
14
06 설계안
교육경로 · 대학·산업 · 자격 · 모듈
15 — 18
07 실행안
통합 플랫폼 · 이제부터 세 가지 공동행동
19 — 20
(사) 반려동물연관산업협회
02 / 20

I · 도입 · 현장의 현실 개선점 네 가지

현장의 현실

현행 반려동물연관산업과 교육현장의 네 가지 개선점

01 학교가 얼마나 있는지, 무엇을 가르치는지 모른다

교육기관의 수, 개설 학과, 교육과정, 교수진이 통합적으로 파악되지 않아 정책과 산업이 어디에 연결해야 할지 모른다.

02 교육기관 간 네트워크가 전혀 없다

학교 · 대학 · 연구기관 사이의 정보 · 사례 · 강사 · 표준 교류가 없어 같은 시행착오가 되풀이된다.

03 산학협력 체계가 전혀 없다

학교와 산업체를 직접 잇는 통로가 없어, 학생은 산업현장을 알지 못하고 기업은 필요한 인력을 찾지 못한다.

04 학교교육이 산업육성과 유기적이지 못하다

실제 학교교육이 반려동물연관산업 육성 계획과 분리되어, 졸업생이 산업으로 진입하는 경로가 닫혀 있다.

법은 만들었습니다 — 이제 학교 · 산업 · 자격 · 취업을 하나의 성장경로로 연결해야 합니다.

II · 법적 기반 · 법률의 개관 법률 제21436호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26. 3. 10. 공포 · 2027. 3. 11. 시행 예정

I 제 1 조 · 목적

왜 만들었나

- 산업 경쟁력 강화
- 국민경제 발전
- 반려동물 복지 향상

+

II 제 2 조 · 정의

무엇을 묶었나

- 펫사료 · 의약품 · 용품 · 서비스
- 이 네 분야의 제조 · 유통 · 서비스업
- 수의업 등 다른 법의 고유영역은 제외

펫테크 · 유전체 · 의료기기 · 교육 · 돌봄 · 장례는 실제 사업내용에 따라 4 대 법정 분야와 다른 법률에 매핑된다.

II · 법적 기반 · 법적 근거 1 시행 2027. 3. 11.

육성계획과 통계에 전문인력 정책을 넣습니다.

제 4 조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계획

제 1 항 · 제 2 항 제 5 호 · 제 4 항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5 년마다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계획 (이하 " 육성계획 "이라 한다) 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5. 반려동물 연관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육성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제 5 조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등

제 1 항 · 제 2 항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육성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 · 시행하거나 그 밖에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 · 시행하기 위하여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 1 항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참고하여 반려동물 연관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 · 관리 및 공표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국가데이터처와 협업할 수 있다.

(사) 반려동물연관산업협회 05 / 20

II · 법적 기반 · 법적 근거 2 시행 2027. 3. 11.

특구는 교육비 · 실증시설 · 데이터 활용을 함께 지원합니다

제 6 조

반려동물 연관산업 특구의 지정 등

제 1 항 각 호 외의 부분 · 제 3 호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반려동물 연관산업 특구 (이하 " 특구 "라 한다) 로 지정할 수 있다.

3. 반려동물용품의 기술 검증, 제품인증 및 실증시설 등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을 위한 시설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지역이나 운영계획을 수립한 지역

제 9 조

특구에 대한 지원 등

제 2 항 제 1 호 · 제 2 호 · 제 3 항 제 1 호 ~ 제 3 호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에 사업장을 둔 반려동물 연관산업자의 기술개발, 사업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반려동물 연관산업 관련 전문인력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

2. 반려동물 연관산업 관련 실증시설, 시제품 생산시설 및 연구 · 기술개발 시설의 우선 사용 및 사용료 감면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특구 내 반려동물 연관산업 관련 데이터의 생성 ·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 1. 표준화 2. 생성 · 수집 · 보존 · 전송 3. 공유 · 공동활용 · 거래

(사) 반려동물연관산업협회 06 / 20

II · 법적 기반 · 법적 근거 3

시행 2027. 3. 11.

연구성과를 상업화와 창업까지 이어 줍니다.

제 10 조

연구 및 기술개발 촉진 등

제 1 항 · 제 2 항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반려동물 연관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반려동물 연관산업 관련 동향조사 및 관련 기술의 수요 조사
2. 반려동물 연관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3. 반려동물 연관산업 관련 정보교류 및 기술협력
4. 그 밖에 반려동물 연관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사항

② … 출연하거나 보조하는 등 그에 대한 필요한 경비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 11 조

벤처기업 및 창업 지원

제 1 항 · 제 2 항 제 3 호 · 제 4 호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 10 조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 성과 등의 보급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반려동물 연관산업 관련 벤처기업 및 창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3. 반려동물사료, 반려동물용품 및 반려동물서비스 (이하 " 반려동물제품등 "이라 한다) 의 실증 및 시제품 생산
4. 반려동물제품등의 판로 확보 및 홍보

II · 법적 기반 · 법적 근거 4

시행 2027. 3. 11.

교육 뒤에는 전담기관 · 정보 · 해외진출이 연결됩니다.

제 12 조 · 제 13 조

양성기관 지정 · 전담기관 지정

제 12 조 제 1 항 · 제 2 항 / 제 13 조 제 1 항 · 제 2 항 제 1 호 ~ 제 3 호

제 12 조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 「고등교육법」 제 2 조에 따른 학교, 반려동물 연관산업 및 동물복지 등에 관한 연구 ·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 · 기관 또는 단체 … 를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 제 1 항에 따라 지정된 양성기관에 대하여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 13 조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양성기관 관리 2. 종합정보시스템 운영 3. 해외진출 촉진

제 14 조 · 제 15 조

종합정보시스템 · 해외진출 촉진

제 14 조 제 1 항 / 제 15 조 제 1 항 제 1 호 ~ 제 3 호 · 제 2 항

제 14 조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반려동물 연관산업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 · 운영할 수 있다.

제 15 조 ① …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외시장 · 수출 관련 정보 수집 · 제공 2. 정보 · 기술 · 인력 국제교류 3. 국제박람회 등의 개최 · 참가

취업박람회 · 기업설명회 · 해외견학 · 통합 진로플랫폼은 법정 의무가 아니라 정책설계의 영역이다.

II · 법적 기반 · 제 12 조 전문 시행 2027. 3. 11.

제 12 조는 양성기관의 지정 · 지원 · 제재 · 위임을 정한다.

제 12 조 · ① 지정 · ②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 2 조에 따른 학교, 반려동물 연관산업 및 동물복지 등에 관한 연구 ·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 · 기관 또는 단체 (이하 " 양성기관 "이라 한다) 를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 1 항에 따라 지정된 양성기관에 대하여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 12 조 · ③ 지정취소 · 정지 · ④ 위임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 1 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정지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비용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 년 이상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④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구체적인 기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 반려동물연관산업협회 09 / 20

III · 미완성 지점 · 교육 공백 세 가지 교육 공백

세 공백은 하위법령 · 육성계획 · 산학협력 · 법률 보완으로 채운다

01
고교 직접경로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는 제 12 조가 인용한 「고등교육법」 제 2 조의 학교 범위에 직접 포함되지 않는다.

02
개인 국가자격

자격명 · 시험 · 합격 · 자격증 · 취소의 규정을 정한 조항이 없어, 제정으로 개인 자격이 신설된 것은 아니다.

03
통합 운영체계

학교 · 기업 · 실습 · 채용을 법정으로 묶는 상설 운영체계는 구체화되지 않았다.

법의 공백은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
하위법령 · 육성계획 · 산학협력 · 법률 보완의 설계 과제다.

(사) 반려동물연관산업협회 10 / 20

IV · 산학협력 모델 · 제조업

제조업 — 5 가지 법정 장치

제조업은 학교 · 자격 · 채용을 법으로 직접 묶는다.

5 가지 법정 장치가 산학협력의 근간을 만든다.

01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국가기술자격법 제 10 조 · 지정 교육 · 훈련과정 이수 + 평가기준 충족 시 자격 부여 · 2026 년 208 종목 시행 · 학교 교육 자체가 국가자격 경로.

02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산학협력법 제 8 조 · 기업 · 학교 공동 설계, 등록금 · 장려금 기업 부담 · 삼성 7 개교 · SK 하이닉스 3 개교 · 입학 = 채용 확정.

03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20 개 대학 · 1 학년 이수 후 2 학년부터 재직 병행 · 학사 3 년 취득 · 중소기업 컨소시엄 방식 적용 가능.

04 일학습병행 자격

산업현장 일학습병행법 · 기업 현장훈련 + 교육기관 훈련 → 내부 · 외부 평가 · 외부평가 합격 시 정규직 전환 의무.

05 LINC 3.0 산학협력

75 개 일반대 · 59 개 전문대 · 4,470 억 원 투입 · 기업협업센터 · 계약학과 지원 · 정부 재정으로 산학협력의 큰 축을 만든다.

제조업은 학교 과정 → 자격 → 채용이 법으로 묶여 있어, 산학협력이 작동한다.

IV · 산학협력 모델 · 식품산업

식품산업 — 기능조합 모델

식품산업은 여러 제도를 조합해 인력경로를 만든다.

전문인력 양성 · HACCP 교육 · 국가기술자격 · 클러스터 현장실습이 기능별로 분리된 채 결합된다.

전문인력 양성

요건 갖춘 대학 · 연구소 등 지정 가능

제조 · 가공 · 품질 · 위생 · 창업 교육
양성경비 지원 가능

법정 안전교육

HACCP 교육훈련기관

신규 · 정기교육 수료증
기관 인력 · 시설 · 운영 평가

직무 역량 검증

식품안전기사 · 식품기술사

국가기술자격 별도 검정
HACCP 수료증과 법적 성격 구분

현장 · 채용 연결

클러스터 실습 · 매칭

특성화고 · 대학생 현장실습
기업 채용매칭 · 일자리박람회

정책과제 : 교육 · 안전 · 검증 · 현장 · 채용을 구분하고, 필요한 통로만 연결한다.

IV · 산학협력 모델 · 미용 · 면허 미용 · 면허 모델

미용·면허 모델

공중위생관리법 제 6 조는 학과 졸업이 곧 면허가 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 6 조 · 법률 제 20171 호 · 시행 2025. 7. 31.

미용사 면허 — 학과 졸업이 곧 영업 자격

①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미용사 면허를 준다.

1. 전문대학 이상의 미용 관련 학과 졸업자
2. 교육부령이 정하는 고등학교의 미용 관련 학과 졸업자
3. 특성화고 등에서 1 년 이상 미용 과정을 이수한 자
4. 미용사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② 제 1 항 각 호의 면허를 받은 자만이 미용업을 영업할 수 있다.

반려동물 적용 — 미용 분야가 ' 학과 졸업 → 면허 → 영업 자격 '이라는 한 줄기 구조를 법으로 이미 갖추고 있으므로, 반려동물 분야도 이 구조를 벤치마킹해 같은 골격을 세우면 됩니다. 즉 동물미용업 · 훈련업에 면허 또는 자격 요건을 먼저 두고, 평가인증을 받은 학과의 졸업을 그 요건을 충족하는 경로로 법에 명시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되면 학과 진학이 곧 영업 자격으로 이어지고, 교육과 산업이 하나의 제도 안에서 맞물립니다.

(사) 반려동물연관산업협회 13 / 20

V · 차이점 분석 · 5 layer 결합 5 layer 결합 설계안

타산업 제도를 벤치마킹해 반려동물 산업에 적용합니다.

차이의 출발점은 학교 · 자격 · 채용을 법으로 묶는 장치의 유무다 — 그리고 이 5 layer 가 함께 놓여야 작동한다.

층위	벤치마크	반려동물 적용
① 기관 교육 주체 지정	말산업 양성기관 지정 (고교 6 · 대학 5)	육성법 제 12 조 지정 + 동물보건사 평가인증 확대
② 자격 학교 → 자격	미용사 면허 (공중위생법 제 6 조) ·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법 제 10 조)	행동지도사 · 미용 과정평가형 편입, 인증학과 졸업 = 면허 · 자격 경로
③ 채용 교육 ↔ 채용 묶음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 마이스터고 (재용조건형 · 일학습병행)	펫기업 컨소시엄 조기취업형 트랙, 인턴 지원금, 채용 성공 인센티브
④ 운영 협회의 공용창구	마사회 · LINC 기업협업센터 (인턴 지원금 · 교원 1:1 코칭 · K-MOOC)	협회 주관 매칭 포털 · 교원 연수 · 해외연수 · 취업박람회 · 표준협약

(사) 반려동물연관산업협회 14 / 20

VI · 설계안 · 교육경로

순환경로 4 단계

고교 – 대학 – 기업 – 재직자, 하나의 성장경로로.

진학형과 취업형을 동시에 열고, 취업 뒤에는 재직자 교육으로 다시 연결한다.

01 특성화고 · 마이스터고
기초 직무
동물복지 · 안전

02 대학 · 전문대학
고급기술 · R&D
규제 · 사업화

03 기업 · 연구기관
현장실습 · 프로젝트
채용 · 실증

04 재직자
향상교육
직무전환

취업 → 재교육 → 직무전환 → 다시 산업현장으로

학교는 교육의 질과 학생 안전을 책임지고, 기업은 필요한 직무와 채용수요를 제시하며,
협회는 이 연결이 반복되는 산업계 공용 창구가 된다.

(사) 반려동물연관산업협회

15 / 20

VI · 설계안 · 대학 통로

교육 · 현장 · 진로 3 단

대학 학과와 산업체 사이의 연결통로를 제도화한다.

법적 수단은 이미 있다. 학교별 일회성 행사에서 연간 체계로 전환한다.

i 교육

특별과정 · 계약학과 · 산업수요 맞춤형 공동교육과정

기업의 직무수요를 교육과정 · 교재 · 강사에 반영하고, 학점 · 학위 절차는 학교 학칙을 따른다.

ii 현장

캡스톤 · 현장실습 · 공동연구 · 학교기업

현장문제를 교육에 넣고, 학교가 안전 · 학습성 · 학습시간을 관리하며, 기업은 현장지도를 책임진다.

iii 진로

분기별 기업설명회 · 연례 통합 취업박람회

학생의 포트폴리오와 기업의 채용결과를 다음 교육과정에 환류하고, 학생 정보 접근성을 개선한다.

협회는 학교의 학점 · 학위를 대신하지 않고 기업 · 직무정보와 공동 기회를 제공하는 산업계 공용창구다.

(사) 반려동물연관산업협회

16 / 20

VI · 설계안 · 자격 단계 5 단계 검증 사다리

자격은 자동승격이 아닌, 검증 단계로 설계한다.

수료증 → 수행평가 → 등록민간자격 → 공인민간자격 → 제한적 국가자격. 각 단계는 검증 후에만 다음으로.

01
공통기초
수료증
디지털배지

02
산업계 수행평가
기업 참여 검증

03
등록민간자격
국가 품질인증 아님

04
공인민간자격
사회적 통용성 검증

05
제한적 국가자격
공익 · 안전 · 비중복
별도 법률 필요

등록민간자격 ≠ 국가공인.
국가자격은 별도 법률 · 검정 · 관리체계 또는 국가기술자격 신설절차가 필요하다.

(사) 반려동물연관산업협회 17 / 20

VI · 설계안 · 교육 모듈 공통기초 + 5 모듈

공통기초 위에 산업 전 분야의 직무모듈을 쌓는다.

사료 · 용품 · 펫테크 · 의약품 · 의료기기 · 서비스의 5 개 모듈을 공통기초 위에 배치하고 업역경계를 지킨다.

공통기초 동물복지 · 윤리 | 위생 · 안전 | 소비자보호 | 데이터 · 개인정보 | 표시 · 광고 · 업역경계

펫사료 · 푸드테크	펫용품	펫테크 · 유전체	의약품 · 의료기기	펫서비스
원료 · 제조 · 품질	소재 · 제품안전	AI · 센서 · 데이터	규제 · 품질 · 임상실증	행동교육 · 돌봄
표시 · 기능성 근거	시험 · 인증	거버넌스 · 실증	안전보고	장례상조 · 고객보호

(사) 반려동물연관산업협회 18 / 20

VII · 실행안 · 통합 플랫폼

교육 · 자격 · 일자리 · 통계를 한 화면에서.

말산업 공식 사례 | 자료 : 한국마사회 HORSEPIA



호스피아가 연결한 기능

세 가지 통로, 한 화면

- 교육 · 일자리 : 재직자 · 사업주 교육과 인력지원
- 자격 : 원서접수 · 합격자 · 자격증 확인
- 현황 · 통계 : 등록 · 산업데이터 · 지원사업

반려동물 적용 : 학교 → 모듈 → 실습 · 실증 → 역량검증 → 채용 · 경력 · 통계

VII · 실행안 · 공동행동

이제부터 세 가지 공동행동

이제부터, 세 가지 공동행동부터 시작합시다.

법 시행을 기다리는 대신 교육계와 산업계가 공동 시범모형을 먼저 운영하고, 그 결과를 하위법령 · 육성계획 · 법보완에 환류한다.

01

상설 산학교육 협의체 구성

농식품부 · 교육당국 · 협회
대학 · 학교 · 기업 · 연구기관
산업수요 · 직무 · 학교과정 공동조사
현장실습 안전기준 초안

02

공동 교육 · 진로 플랫폼 시범사업

대학 · 직업계고
분야별 기업들
공통기초 + 선도모듈
시범 운영

03

하위법령 공동제안

고교 연계 · 교육 · 안전
성과기준을 하위법령에 반영
검증된 직무의 단계적 자격 설계
정책제안 → 시범 → 제도화

공동교과 → 기업설명회 → 하계 현장실습 · 해외견학 → 가을 통합 취업박람회

학과를 더 만드는 것보다,
흩어진 학과와 산업을 연결하는 일이 먼저다.

국내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교육 현황 및 방향성

2026년 9월 18일 | 오산대학교 반려동물관리과 도성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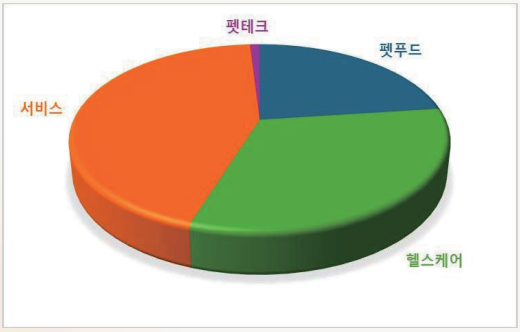
반려동물 연관산업 분류 및 현황

펫푸드 (Pet Food)
약 2조원 (2022 기준)
사료, 간식, 처방식, 기타 보조제

헬스케어 (Healthcare)
약 2조 7천억 (2022 기준)
동물병원, 동물약품, 펫보험, 의료기기

서비스 (Services)
약 3조 7천억 (2022 기준)
펫미용, 숙박/위탁, 훈련, 장묘, 기타

펫테크 (Pet Tech)
약 천억 (2022 기준)
디지털 헬스케어, 스마트 기기 등



펫 서비스 (44%) 〉 헬스케어 (32%) 〉 펫푸드 (22%) 〉 펫테크 (1%)

KREI, 2024

세부 시장별 규모 및 향후 성장률 (2022 – 2032)

KREI 분류 기반(2022): 서비스(44%) > 헬스케어(31.9%) > 펫푸드(22.7%) > 펫테크(1%)

펫푸드 (Pet Food)
약 2조원 → 약 3조원
CAGR 4.4%
건식, 기능성·처방식·습식 세분화

헬스케어 (Healthcare)
약 2.7조원 → 약 7조원
CAGR 11.4%
수의서비스, 약품, 펫보험

서비스 (Services)
약 3.7조원 → 약 9.5조원
CAGR 9.9%
미용, 호텔, 돌봄, 행동교정, 장례

펫테크 (Pet Tech)
약 1천억 → 약 5천억
CAGR 16.3%
위치추적, AI모니터링, 건강관리

세부 시장 주요 품목별 2032 전망 및 핵심 동력

세부 시장	2022년 가치	2032년 전망	CAGR	핵심 성장 동력 (Growth Drivers)
동물의료	$1,490.0m	$3,929.7m	10.2%	반려동물 고령화, 노령 질환 전문병원 및 첨단 의료기기 도입
펫푸드 보조제	$94m	$266.5m	10.92%	반려동물 생애주기를 위한 펫푸드 보조제 개발
펫보험	$22.7m	$106.5m	16.7%	소형견/고양이 맞춤형 상품 및 동물병원 메디컬 케어 연계
돌봄·위탁	$106.9m	$336.8m	12.2%	1인 가구 증가, 펫시터 및 전문 데이케어 센터 보급

KREI, 2024

반려동물 관련 대학교육 현황

반려동물 커리큘럼 현황

유형	세부시장	대표 학과 명칭	중심 교육
동물보건형	헬스케어	동물보건학과, 반려동물보건과, 바이오동물보건과	보건, 질병, 의약품, 수의간호, 외과학 등
종합 반려동물형	서비스	반려동물과, 반려동물관리과, 반려동물산업학과	미용, 훈련, 관리, 행동 등
생명·바이오·융합형	헬스케어, 서비스, 펫푸드	동물생명공학과, 동물생명융합, 동물응용과학과 , 동물자원학과, 특수동물학과	생명과학, 축산, 바이오, 실험, 가공 등

반려동물 관련 국가자격증 현황



반려동물 연관산업 별 교육체계 비교

비교 요소	헬스케어	펫푸드	서비스	펫테크
대표 직무	비교적 명확	다양	매우 다양	매우 다양
국가자격 연계	동물보건사	직접 자격 부족	행동지도사 일부	직접 자격 부족
법적 근거	수의사법	사료 관련 법·제도	동물보호법 등	분야별 상이
대학 교육과정	상대적으로 표준화	초기 단계	대학별 편차	초기 단계
교육기관 인증	있음	없음	없음	없음
실습	체계적	상대적으로 부족	분야별 차이	상대적으로 부족
산업계 요구역량 정의	비교적 명확	추가 정립 필요	추가 정립 필요	추가 정립 필요

반려동물 연관산업 별 교육체계의 방향성 및 인재상

헬스케어 (Healthcare)	펫푸드 (Pet Food)	서비스 (Services)	펫테크 (Pet Tech)
교육 방향성 • 임상실무, 보호자 상담 및 커뮤니케이션, 재활 등을 강화한 직무역량 중심 교육으로 고도화	**교육 방향성** • 펫푸드 직무와 연결되는 국가자격 또는 전문인력 인증체계 부족 • 대학 교육과정 표준화 부족	**교육 방향성** • 창업, 마케팅, 고객상담, 손익분석 등 사업운영 교육 부족	**교육 방향성** • 반려동물학 전공자의 데이터, AI, ICT 등 공학 전공과의 연계 강화
목표 인재상 • 현장형 동물헬스케어 전문인재	**목표 인재상** • 영양, 제품개발, 품질관리 등의 역량을 갖춘 펫푸드 실무 전문인재	**목표 인재상** • 전문기술과 고객 및 사업관리 능력을 갖춘 반려동물 서비스 경영형 인재	**목표 인재상** • 펫테크 융합혁신 인재

산업과 대학 교육 사이의 "성장의 시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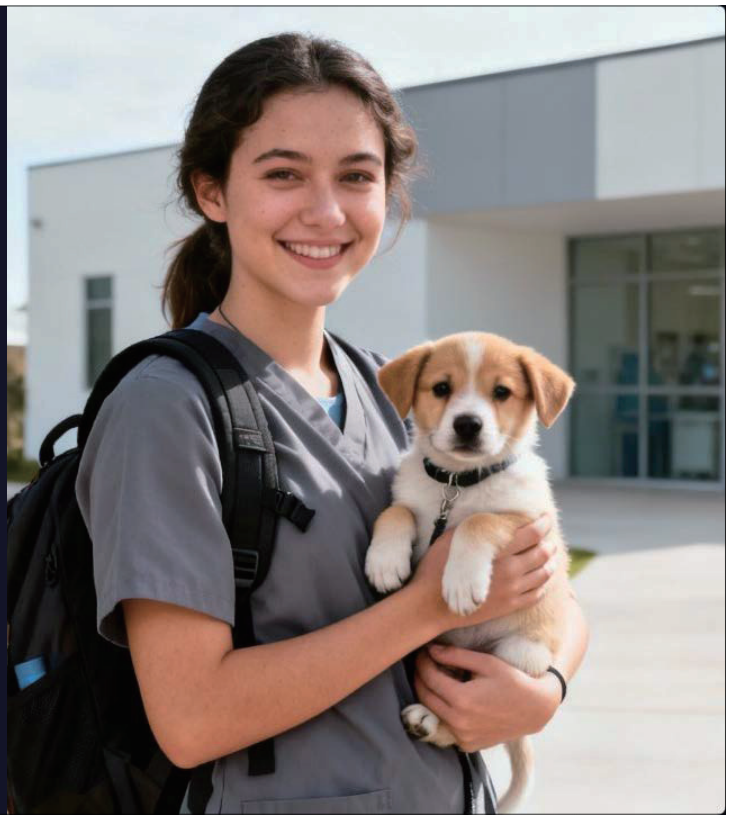
헬스케어 (Healthcare)	펫푸드 (Pet Food)	서비스 (Services)	펫테크 (Pet Tech)
실제 업무 예방의학 및 건강검진 보조 진료 보조, 간호, 시술 보조 검사(혈액·영상·병리) 보조 및 결과 관리 약품·의료기기 관리 및 고객 상담 환자 및 보호자 교육, 재활·영양 관리 지원 병원 운영 지원 및 고객 서비스	**실제 업무** 시장·소비자 조사 및 트렌드 분석 영양 설계 및 배합(Formulation) 원료 선정 및 기능성 소재 연구 제품 개발 및 기호성·소화율 평가 생산 공정 관리 및 품질 관리(QC/QA) 법규 검토, 표시·광고 및 수출 업무	**실제 업무** 미용, 훈련, 행동교정, 유치원/호텔 운영 펫시팅, 산책, 방문 돌봄 서비스 고객 상담, 예약·멤버십·CRM 관리 매장 운영, MD, 상품 관리, 재고 관리 마케팅(SNS, 콘텐츠), 이벤트 기획 창업·경영 관리, 손익 분석, 인사 관리	**실제 업무** 웨어러블·스마트 기기 개발 및 관리 앱·플랫폼 서비스 기획 및 운영 데이터 수집·분석, AI 모델 개발/운영 원격 모니터링, 헬스케어 서비스 연동 UX/UI 설계, 사용자 경험 개선 제품 상용화, 마케팅, 고객 지원

Q & A

반려동물연관산업 교육발전방향 심포지엄

특성화고등학교에서의 반려동물연관산업 교육 현황과 개선방안

발표자: 교사 오창익
(전북펫고등학교)



1. 특성화고 교육의 질적 수준과 전문성

특성화고는 결코 대학에 뒤처지지 않는 **최고 수준의 실무 교육**을 제공합니다.

- **NCS 기반 정규 교육과정:** 전문대학과 동일한 직무능력표준 적용
- **우수한 인프라:** 최첨단 미용/훈련/수의보조 실습실 완비
- **3년 집중 실습:** 단순 이론이 아닌 3년간의 현장 밀착형 반복 숙달
- **높은 입학 자원:** 뚜렷한 진로 목표를 가진 우수 인재 유입

현장 즉시 투입 가능한 실무 역량

고교 3년 과정을 마친 학생들의 실무 전문성은 산업 현장에서 이미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2. 교육적 낭비 현상: 고교-대학 진학 시 중복 학습

특성화고 졸업생이 대학 진학 시 겪는 **심각한 교육 내용 중복**

특성화고 3년
미용/훈련 실습 마스터

→

반려 동물 관련 대학 진학
미용/훈련 실습

→

동일 실습 반복
시간적/경제적 낭비

이는 국가 차원의 교육적 낭비이며, 특성화고가 자체적으로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이미 갖추고 있음을 방증합니다.

3. 반려동물연관산업법과 인력 양성 사각지대

제정 2026.03.10 / 시행 2027.03.1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반려동물연관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연구소, 대학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특성화고 배제 우려

하위 법령 설계 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대학 이상'으로 한정될 경우, 실무 교육의 핵심인 **특성화고가 배제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고교 교육의 비중이 과소평가된 상황을 우려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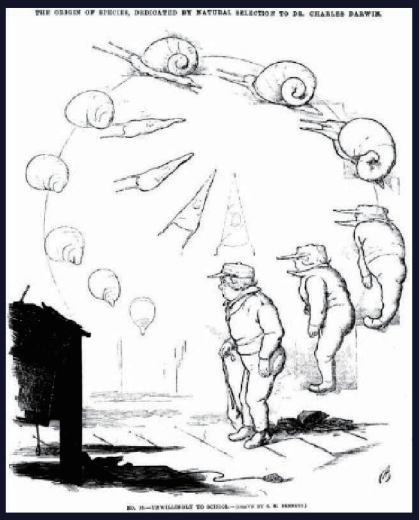
4. 타 산업 성공 사례 벤치마킹: 말산업육성법

농림축산식품부의 타 법안에서는 이미 **고등학교를 핵심 양성기관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말산업육성법 (제10조)	반려동물연관산업법 (제12조)
양성기관 지정 대상	☑ 고등학교, 대학, 연구소 등	대학, 연구소 등 (고교 명시 부족 우려)
실제 지정 사례	한국경마축산고, 서귀포산업과학고 등 다수 지정 및 운영	하위 법령 제정 단계
산업 파급 효과	조기 실무 인력 투입 및 산업 견인	특성화고 배제 시 인력 수급 불균형 예상

5. 교육 현장의 현안 ① : 실습 동물 복지 기준의 모호성

- ⚠ 명확한 **학교 단위 실습 동물 복지 가이드라인** 부재
- ⚠ 교육기관임과 동시에 생명을 다루는 공간으로서의 **정체성 혼란 및 딜레마** 발생
- ⚠ 현장 교사들은 교육적 효과 달성과 윤리적 동물 관리 사이에서 **큰 운영상의 부담**을 안고 있음



6. 교육 현장의 현안 ② : 국가 자격증 취득의 현실적 장벽

매우 높은 진입 장벽

제한적인 국가(공인) 자격

반려동물 산업에서 공신력을 인정받는 국가 자격증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

고교생 취득의 어려움

응시 요건, 시험 일정, 별도의 학원 수강 요구 등 고등학생 신분으로 도전하기에 제약

7. 교육 현장의 현안 ③ : 남발되는 민간 자격증의 폐해

무분별한 발급으로 인한 신뢰도 하락 곡선

- 단순 **'교육 이수'만으로 발급**되는 무분별한 민간 자격증 범람
- 자격증의 **변별력 및 신뢰도 대폭 상실**
- 취업을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취득해야 하는 **학생들의 금전적 피해**
- 자격증만으로는 실무 능력을 믿지 못하는 **산업체의 채용 기피 악순환**

8. 산·학·관 개선 제언 ① : 특성화고 양성기관 지정

특성화고와 대학은 경쟁 관계가 아닌 **유기적 역할 분담**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특성화고등학교

현장 밀착형 **기초·실무 인재** 양성

지역 대학

지역 특색에 맞는 **심화·연구 인재** 양성

법적 테두리 안에서 당당한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고교 지정 필수

9. 산·학·관 개선 제언 ② : 실습 동물 복지 가이드라인 마련

안전하고 윤리적인 실습 환경 구축

- 정부 및 협회 주도의 공신력 있는 **복지 매뉴얼 제정**
- 가이드라인 확립을 통한 **교사의 법적/심리적 부담 완화**
- 생명 존중을 바탕으로 한 올바른 인성 및 직업 윤리 교육 실현



10. 산·학·관 개선 제언 ③ : 과정평가형 국가 자격증 도입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과정평가형 도입
민간 자격증 의존도를 낮추고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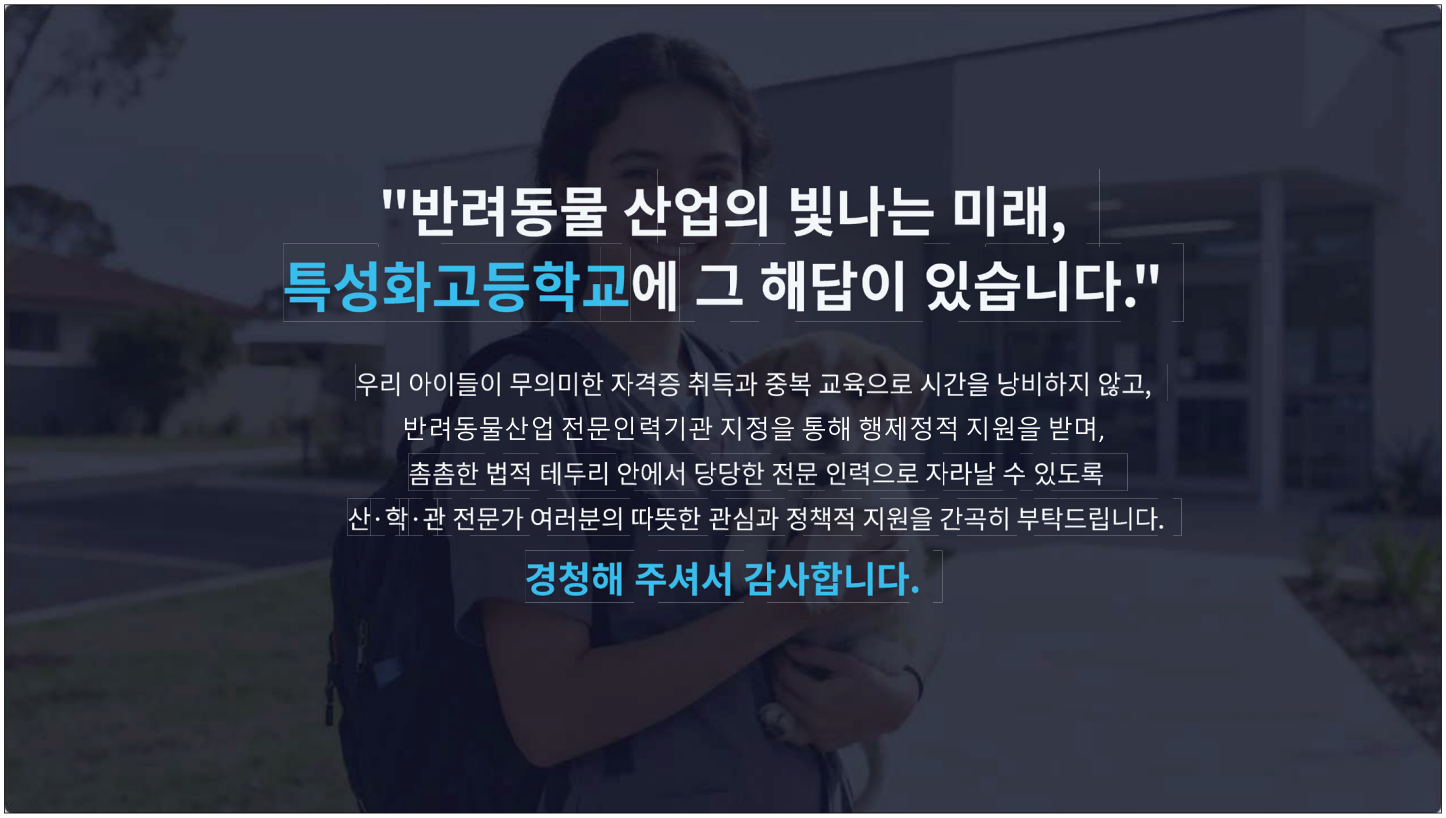
고교 3년 정규과정
충실한 교육 이수

→

내/외부 평가
과정평가형 검증

→

국가 자격증 취득
사교육비 절감 및 즉시 투입



"반려동물 산업의 빛나는 미래, 특성화고등학교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무의미한 자격증 취득과 중복 교육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반려동물산업 전문인력기관 지정을 통해 행제정적 지원을 받며,
촘촘한 법적 테두리 안에서 당당한 전문 인력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산·학·관 전문가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정책적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려동물 연관산업
교육 콘텐츠 개발의 필요성

동물보건학과 계열과 동물산업학과 계열 교육과정 비교를 중심으로

2026년 9월 18일 (금)

인제대학교 반려동물보건학과

추교문

차 례

요약

Ⅰ. 들어가며

Ⅱ. 검토 대상과 방법

Ⅲ. 산업의 성장과 제도의 정비

Ⅳ. 교육 현장에서 확인되는 네 가지 어긋남

Ⅴ. 동물보건 계열과 동물산업 계열의 교육과정 비교

Ⅵ. 미국·일본 제도와의 비교

Ⅶ. 국내에서 이미 진행 중인 표준화 작업

Ⅷ. 표준 교육 콘텐츠 개발의 방향

Ⅸ. 추진 방안

Ⅹ. 맺으며

참고자료 및 출처

표 차례

표 1. 반려동물 분야 국가자격 두 가지의 비교

표 2.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회차별 응시자와 합격률(제1~5회)

표 3. 두 계열의 교육과정 특성 비교

표 4. 한국·미국·일본의 동물보건 인력 양성 제도 비교

요약

반려동물 연관산업은 2022년 약 8조 원에서 2032년 약 21조 원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023년 펫푸드와 펫헬스케어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삼겠다는 방향을 제시하였고, 2026년 2월에는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산업 지원의 법적 근거까지 마련되었다. 이 법에는 대학과 연구기관을 연관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겨 있다.

그러나 이 산업을 떠받칠 인력을 기르는 교육 현장에는 아직 공통의 기준이 없다. 본 글은 국내 반려동물 관련학과의 현황,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합격률, 양성기관 평가인증 운영, 미국과 일본의 제도를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학과 명칭이 대학마다 갈리고, 4개 시험과목에 대응하는 유사 인정 교육과정이 345개에 이르며, 자격시험 합격률이 46.5%에서 87.5%까지 등락하였고, 임상 계열과 산업 계열의 구분이 학과 이름만으로는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에 동물보건 계열과 동물산업 계열을 구분한 표준 교육 콘텐츠 개발을 제안한다. 각 계열 안에서 공통 핵심모듈과 기관별 선택모듈로 나누고, 산·학·관 협의체와 단계적 도입 경로를 함께 마련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합격률 자료의 공표 범위를 넓히고, 표준 콘텐츠를 평가인증 기준과 연결하는 방안을 함께 다룰 것을 제안한다.

Ⅰ. 들어가며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여기는 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반려동물 연관산업은 사료, 진료, 미용, 용품, 보험, 장묘 등 여러 갈래로 몸집을 키우고 있다. 국내 시장 규모는 2022년 약 8조 원 수준에서 2032년 약 21조 원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반려동물 양육가구와 개체수도 2012년 364만 가구·556만 마리에서 2022년 602만 가구·799만 마리로 증가하였다. 2025년에는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을 바탕으로 한 방문 면접조사가 처음으로 국가승인통계로 인정받아, 양육가구 비율 29.2%라는 공식 수치가 확보되었다.

인력 양성 측면에서 가장 큰 변화는 2019년 수의사법 개정으로 도입된 동물보건사 제도이다. 동물보건사는 동물병원 안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를 맡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2022년 제1회 자격시험이 치러진 이래 2026년 제5회까지 시험이 이어졌다. 이 제도가 들어서면서 반려동물 관련학과는 국가자격과 직접 연결되는 교육기관의 성격을 갖게 되었고, 평가인증을 받은 기관의 졸업생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되면서 교육 내용의 눈높이가 자격 취득 여부를 좌우하는 구조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학과가 늘어나는 속도에 견주어 교육 내용의 기준은 자리 잡지 못한 모습을 보인다. 여러 대학이 반려동물 관련 학과를 운영하고 있으나 학과 명칭은 반려동물보건과, 동물보건학과, 반려동물산업과, 반려동물과 등으로 제각각이며, 같은 대학 안에서도 진료 보조를 다루는 학과와 산업·비임상 분야를 다루는 학과를 서로 다른 이름으로 나누어 운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국가자격시험 합격률 또한 회차마다 크게 오르내려, 교육 현장의 기준이 아직 하나로 모이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장치로 인증제도와 역량바탕교육이 함께 논의되어 왔다. Frank 등(2010)은 역량바탕교육을 성과 중심으로 교육을 재구성하는 접근으로 정리하였고, Bok 등(2011)은 수의학 분야에서 역량 틀을 개발·타당화하여 교육과정 설계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Chiavaroli 등(2023)은 여러 전문직 교육 분야의 인증 방식을 검토하여 투입 중심 모형과 성과 중심 모형의 특징을 비교하였으며, Vivian 등(2023)은 영국 등록동물간호사를 대상으로 교육이 실무 준비에 미친 영향을 조사하였다. 미국수의과대학협회는 동물간호 분야의 역량바탕교육 모형을 별도로 제시한 바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동물보건사 제도가 도입된 지 오래되지 않아 관련 논의가 자격제도의 인식이나 취업 요구도를 다루는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임상 보조를 다루는 계열과 산업 분야를 다루는 계열을 나누어 교육과정을 견주어 본 검토는 충분하지 않았다. 이 글은 국내 반려동물 관련학과의 현황과 두 계열의 교육과정을 비교하고, 자격시험 합격률과 평가인증 운영 자료를 살핀 뒤, 미국과 일본의 제도를 견주어 계열별 특성을 살린 표준 교육 콘텐츠 개발 방향과 산·학·관 협력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Ⅱ. 검토 대상과 방법

이 글은 문헌 및 공개자료 검토 방식으로 작성하였다. 자료 수집 범위는 2026년 8월까지 공개된 자료로 한정하였으며, 네 갈래의 자료를 대상으로 삼았다.

첫째, 법령 및 행정규칙 자료로 수의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동물보호법, 농림축산식품부고시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요령」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였다. 둘째, 정부 발표 자료로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관계부처 합동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 자격시험 시행공고와 평가인증 계획 공고를 검토하였다. 셋째, 대학 교육과정 자료로 반려동물

관련학과를 운영하는 대학의 공식 누리집에 게시된 학과 소개와 교육과정표를 수집하였으며, 동물보건 계열과 동물산업 계열을 함께 운영하는 대학을 우선 대상으로 삼았다. 넷째, 산업 및 언론 자료로 시장 규모 전망 보고서, 학술세미나 발표 내용을 다룬 전문지 보도를 참고하였다.

국외 제도는 미국수의사회(AVMA) 수의테크니션교육위원회(CVTEA)의 인증 기준 문서와 일본의 애완동물간호사 제도 관련 자료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격 명칭, 법적 근거, 교육기관 인증 방식, 합격률 공표 방식의 네 항목을 견주어 정리하였다. 수집한 자료는 산업 성장 현황, 학과 현황과 명칭, 계열별 교육과정, 자격시험 합격률, 평가인증 운영, 국외 제도의 여섯 갈래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이 글은 기존 공개자료를 종합·재구성한 검토 작업으로서 별도의 실험이나 설문을 진행하지 않았으므로 연구윤리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Ⅲ. 산업의 성장과 제도의 정비

1. 시장 규모와 정부의 자체 진단

국내 반려동물 연관산업은 2022년 약 8조 원 규모로 세계시장 대비 1.6% 수준으로 추정되며, 연평균 9.5% 안팎으로 커지고 있다. 분야별로는 펫테크 시장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규모가 큰 펫헬스케어와 펫푸드 시장도 각각 연 11%와 6%대 성장이 전망된다. 세계 시장은 2022년 3,720억 달러에서 2032년 7,762억 달러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주목할 점은 정부 자체 진단에서도 산업 기반의 미비가 지적되고 있다는 것이다. 관계부처 합동 자료는 반려동물에 적합한 분류·표시·평가 제도와 연구개발 및 기반 시설 등 정책적 지원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진단은 제도와 기반의 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나, 그 제도를 현장에서 다루고 넓혀 갈 인력을 기르는 교육 콘텐츠 역시 같은 맥락에서 살펴야 할 대상이다.

2. 2026년 반려동물연관산업육성법의 제정

2026년 2월 12일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정부가 육성대책을 발표한 지 약 2년 6개월 만이며, 말·관상어·양봉에 이어 특정 축종의 산업을 지원하는 법이 반려동물 분야에도 생긴 것이다. 이 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5년에 한 번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계획을 세우고 매년 시행해야 하며, 산업특구 지정, 연구·기술개발 촉진, 벤처·창업 지원, 해외시장 개척 지원의 근거가 함께 마련되었다.

교육과 직접 맞닿는 조항

제정안에는 대학,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를 **반려동물 연관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겼다. 이는 동물보건 계열 밖의 산업 인력에 대해서도 국가가 교육기관을 지정할 근거가 생겼다는 뜻이다. 지정 기준에 무엇을 담을지는 앞으로 정해질 사안이며, 표준 교육 콘텐츠는 그 기준을 채울 재료가 된다.

3. 인력 양성 제도의 두 축

반려동물 분야의 국가자격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수의사법에 근거한 동물보건사이고, 다른 하나는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도입되어 2024년 첫 시험이 치러진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이다. 두 자격은 근거 법령과 운영 방식이 다를 뿐 아니라, 교육기관을 관리하는 방식에서 결정적으로 갈린다.

표 1. 반려동물 분야 국가자격 두 가지의 비교

구분	동물보건사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근거 법령	수의사법(2019년 개정)	동물보호법(2022년 개정)
첫 시험	2022년(2026년 제5회까지)	2024년 2급(2025년부터 1급 병행)
응시 요건	평가인증 양성기관 졸업 필수	2급은 만 18세 이상 누구나
시험 방식	필기 4과목 200문항	필기 5과목 및 실기
교육기관 관리	농림축산식품부 평가인증(3년·2년·1년)	양성기관 인증 제도 없음
교육 표준	표준교육과정 개발 연구 진행 중	표준 교육 기준 공백

출처: 수의사법, 동물보호법,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및 시험 시행공고를 정리.

행동지도사 자격이 생기면서 산업 계열에도 국가자격이라는 목표점이 하나 생겼다. 그러나 이 자격은 양성기관 인증과 묶여 있지 않아, 대학 교육과 자격이 서로를 규율하지 않는다. 산업 계열의 교육 기준 공백이 자격 신설만으로는 메워지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Ⅳ. 교육 현장에서 확인되는 4가지의 문제점

1. 학과 명칭의 혼재

반려동물 관련학과는 동물보건사 제도화 논의가 진행된 2010년대 중후반 이후 빠르게 늘었다. 문제는 유사한 성격의 교육을 가리키면서도 학과 명칭이 대학마다 다르다는 점이다. 반려동물보건과가 11개 대학에, 반려동물과가 11개 대학에, 동물보건학과가 3개 대학에 개설되어 있으며 세 갈래 모두 국가자격인 동물보건사 취득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명칭이 다르다 보니 수험생과 채용 담당자가 학과 간 교육 내용의 차이를 가늠하기 어렵다.

2. 교과목 명칭의 난립 — 4개 과목에 345개 교육과정

교과목 차원에서도 같은 흐름이 확인된다. 2026년도 제5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시행공고에 첨부된 유사 교과목 인정 목록을 보면, 4개 시험과목에 해당하는 교과목별 인정 교육과정이 345개에 이른다. 예컨대 기초동물보건학의 동물해부생리학 한 과목에 대해서만 동물생리학, 동물해부학및실습, 동물해부생리및실습, 동물기본해부학및실습, 해부생리학, 반려동물해부생리, 애완동물해부생리질병학, 동물병태생리학 등 21개 교과목명이 유사 과목으로 인정되고 있다.

유사 교과목 인정 제도는 대학마다 다른 교과목 이름 탓에 학생이 응시자격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마련된 장치로서, 그 자체로는 합리적인 보완책이다. 그러나 하나의 시험과목에 20개가 넘는 교과목명이 대응한다는 사실은 같은 내용을 다루는 과목조차 대학마다 다른 이름과 다른 구성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교과목명이 다르다는 것은 대체로 강의계획서와 교재, 실습 항목의 구성도 함께 다르다는 뜻이므로, 학생이 어느 대학에서 배웠는지에 따라 같은 시험을 준비하는 출발선이 달라질 수 있다.

3. 자격시험 합격률의 큰 등락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은 기초동물보건학 60문항, 예방동물보건학 60문항, 임상동물보건학 60문항, 동물보건·윤리 및 복지 관련 법규 20문항의 객관식 필기시험으로 치러지며, 과목당 40점 이상이면서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얻어야 합격한다. 제1회부터 제5회까지의 응시자 수와 시험합격률은 표 2와 같다.

표 2.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회차별 응시자와 합격률(제1~5회)

회차	시행연도	응시자(명)	시험합격률(%)	비고
제1회	2022	2,907	87.5	특례대상자 다수 응시
제2회	2023	1,030	70.6	—
제3회	2024	724	59.1	합격자 428명, 최종합격률 54.7%
제4회	2025	861	46.5	합격자 400명, 최저치
제5회	2026	886	62.5	합격자 554명, 원서접수 979명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회차별 합격자 발표 및 데일리벳 보도(2026. 2. 20.). 최종합격자는 자격조건과 결격사유 서류 검토를 거쳐 시험합격자보다 줄어든다.

합격률은 제1회 87.5%에서 제4회 46.5%까지 네 해 연속 낮아진 뒤 제5회에 62.5%로 올랐다. 응시자 수 또한 제1회 2,907명에서 제3회 724명까지 줄었다가 이후 다시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으며, 원서접수 기준으로는 제3회 831명, 제4회 961명, 제5회 979명으로 세 해 연속 증가하였다. 제1회 시험에는 기존 동물병원 종사자인 특례대상자가 다수 응시하였으므로 초기 회차의 높은 합격률을 그대로 견주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특례 응시가 마무리된 제3회부터 제5회 사이에 합격률이 16%포인트가량 움직인 점은 눈여겨볼 만하다.

대학별 편차도 작지 않다. 제5회 시험에서 응시자 전원이 합격한 학과가 있는가 하면, 전국 평균을 크게 밑도는 학과도 함께 존재한다. 다만 응시자 구성을 나눈 자료가 공표되지 않아, 이러한 편차가 교육 수준에서 비롯된 것인지 응시자 구성 변화에서 비롯된 것인지 가려내기 어렵다.

4. 평가인증 결과의 편차와 4년제의 구조적 제약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은 수의사법 제16조의4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인증 유형은 완전인증 3년과 단축인증 2년으로 나뉘고 신설 양성기관은 1년 인증을 받는다. 평가는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이 평가단을 꾸려 서류 및 방문 평가를 진행한 뒤 인증평가위원회, 인증판정위원회, 인증위원회의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

인증 결과는 연도별로 편차가 크다. 2021년 첫 평가인증에는 20개 학교가 신청하여 14개 학교가 인증을 얻었고, 이듬해 공고에서는 17개 학교가 신청하여 6개 학교만 통과한 뒤 재심의를 거쳐 11개 학교로 늘어난 사례도 있다. 2025년 12월 공고에서는 15개 학교가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이 가운데 10개교가 2028년 12월까지 3년 완전인증을, 5개교가 2026년 12월까지 1년 단축인증을 받았다.

인증 결과가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은 작지 않다. 인증을 받지 못한 학과의 졸업생은 원칙적으로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어, 4년간 재학한 학생이 시험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된 사례가 보도되기도 하였다. 이후 수의사법 제16조의2가 개정되어 입학 당시 평가인증을 받은 학교에 입학하고 고시된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한 졸업생은 졸업 시점에 인증이 취소되었더라도 응시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완전인증 기간이 3년이어서 4년제 학과는 신입생이 졸업할 때까지 인증 유지가 보장되지 않는 구조적 제약은 그대로 남아 있다. 2년제 학과는 인증 기간 안에 졸업이 마무리되어 시험 기회가 지켜지는 것과 대비된다.

> **4가지의 문제점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 네 가지는 서로 다른 문제가 아니다. **각 과목에서 무엇을 어느 깊이로 다룰지에 대한 공통 기준이 없다**는 하나의 공백이 학과 명칭, 교과목명, 합격률, 인증 결과라는 네 지점에서 다르게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 평가인증은 교원, 시설, 학점 등 기관이 갖추어야 할 요건을 살피는 데 무게가 실려 있어 이 공백까지 메우지는 못한다.

Ⅴ. 동물보건 계열과 동물산업 계열의 교육과정 비교

반려동물 관련학과의 교육과정은 대체로 동물보건사 관련 교과목을 큰 틀로 삼고 여기에 훈련, 미용, 펫푸드 등의 교과목을 섞어 구성하는 방식을 취해 왔으나, 최근에는 두 갈래를 별도 학과로 나누어 운영하는 대학이 늘고 있다.

○○대학교는 2019년 반려동물산업학과를 개설한 뒤 2023학년도에 동물보건학과를 따로 신설하였다. 학과 신설 당시 국가자격 동물보건사 양성을 내실 있게 운영하려고 기존 반려동물산업학과와 나누어 신설하였으며, 반려동물산업학과는 동물행동 전문가, 동물매개치료, 펫푸드 전문가 등으로 진로 목표를 잡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대학교는 동물보건사를 기르는 반려동물보건과와 훈련·미용에 무게를 둔 반려동물산업과를 나누어 운영하며, 중부대학교는 동물보건학과와 반려동물사육학전공을 따로 두고 있다.

○○대학교 동물보건학과의 교육과정을 보면 1학년에 기초생명과학, 동물보건영양학, 동물해부생리학및실습, 동물공중보건학, 동물질병학이, 2학년에 동물보건임상병리학및실습, 동물보건영상학및실습, 동물보건복지및법규, 의약품관리학및실습, 동물보건행동학및실습, 동물보건외과학및실습이, 3학년에 동물보건내과학및실습, 동물보건응급간호학및실습,

동물병원현장실습, 동물병원실무및실습 등이 배치되어 있어 진료 보조와 간호 실습에 무게가 실려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달리 같은 대학의 반려동물사육학전공은 생물다양성, 사양관리, 윤리적 번식 및 분양 실습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이 짜여 있다. 두 계열의 교육 목표, 대표 교과목, 연계 자격, 주요 진로, 평가인증 대상 여부를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3. 두 계열의 교육과정 특성 비교

구분	동물보건학과 계열	동물산업학과 계열
교육 목표	동물보건사(국가자격) 양성, 진료 보조 및 간호 역량	산업 실무와 경영 역량, 비임상 분야 전문가 양성
대표 교과목	동물해부생리학, 동물보건임상병리학, 동물보건영상학, 의약품관리학, 동물보건내과학·외과학, 동물병원현장실습	펫푸드, 반려동물산업디자인, 마케팅·창업, 반려동물훈련, 미용, 사양관리 및 번식 실습
연계 자격	동물보건사(국가자격)	반려동물행동지도사(국가자격) 및 다수 민간자격
주요 진로	동물병원, 동물용의약품업체, 동물의료센터	펫푸드 제조, 용품 개발, 훈련·미용업, 창업
평가인증 대상	해당(수의사법 제16조의4)	해당하지 않음 — 교육 수준을 살피는 외부 장치 부재

출처: 각 대학 학과 소개와 교육과정표, 수의사법, 동물보호법을 정리.

두 계열은 교육 목표에서부터 갈린다. 동물보건학과 계열은 국가자격 취득과 진료 보조 역량을 목표로 삼아 평가인증의 대상이 되는 반면, 동물산업학과 계열은 펫푸드, 용품 개발, 훈련, 미용 등 비임상 분야의 실무와 경영 역량을 목표로 삼으며 평가인증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두 계열은 교육 내용뿐 아니라 제도적 위치에서도 서로 다른 자리에 놓여 있다. 그럼에도 학과 이름만으로는 어느 계열인지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학생과 채용 담당자 모두 판단에 어려움을 겪는다.

VI. 미국·일본 제도와의 비교

미국에서는 미국수의사회 산하 수의테크니션교육위원회(CVTEA)가 수의테크놀로지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인증을 진행한다. CVTEA는 인증을 정해진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살펴 교육기관의 질을 평가하는 자발적 절차로 규정하면서, 인증은 목표를 제시하고 기관이 그 목표에 이르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인증 기준은 프로그램의 설계와 운영에 유연성을 허용하도록 작성되며, 기준 자체도 변화하는 과정에 있어 개정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 졸업생이 갖추어야 할 필수 술기 목록을 인증 점검 도구로 함께 두어, 공통 기준으로 최소 수준을 지키면서 설계 방식은 각 기관의 자율에 맡기는 구조를 이룬다.

일본은 2019년 애완동물간호사법이 제정되고 2022년 5월 시행되면서 애완동물간호사를 국가자격으로 전환하였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수의사만 가능하던 채혈, 투약, 마이크로칩 장착, 심폐소생 등 진료 보조 행위의 일부를 수의사의 지시 아래 애완동물간호사도 맡을 수 있게 되었다. 국가시험 응시자격은 대학이나 지정 양성소를 졸업한 경우에 주어지며, 기존 졸업자는 농림수산대신 및 환경대신이 지정하는 강습회를 이수하면 응시자격을 얻는다. 2026년 2월 치러진 제4회 국가시험에는 전국에서 5,493명이 응시하여 전체 합격률 76.0%, 신졸자 평균 88.0%를 기록하였다.

표 4. 한국·미국·일본의 동물보건 인력 양성 제도 비교

구분	한국	미국	일본
자격 명칭	동물보건사	Veterinary Technician	애완동물간호사
법적 근거	수의사법(2019 개정)	주별 면허·인증 제도	애완동물간호사법(2022 시행)
교육기관 인증	농림축산식품부 평가인증(3년·2년·1년)	AVMA CVTEA 인증, 필수 술기 목록 병행	농림수산성·환경성 지정 양성소
최근 합격률	46.5~87.5%(제1~5회)	주별 상이	68.6~88.9%(제1~4회)
신졸자 합격률	미공표	—	공표(79.8~93.7%)
졸업역량 기준	확립 진행 중	확립(CBVE-Nursing)	확립 진행 중

출처: 수의사법 및 평가인증 요령,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AVMA CVTEA 기준 문서, 일본 애완동물간호사 제도 자료를 정리. 미국은 주별로 면허·인증 요건이 달라 단일 합격률을 제시하지 않았다.

일본은 전체 합격률과 신졸자 합격률을 나누어 공표하고 있어, 양성기관을 갓 졸업한 응시자의 성취 수준을 따로 살필 수 있다. 공표된 자료에서 신졸자 합격률은 79.8%에서 93.7% 사이에 놓여 전체 합격률보다 좁은 범위 안에 머물렀다. 반면 국내에서는 신졸자와 특례대상자를 나눈

합격률이 공표되지 않아, 합격률 등락이 양성기관의 교육 수준에서 비롯된 것인지 응시자 구성 변화에서 비롯된 것인지 가려내기 어렵다.

Ⅶ. 국내에서 진행 중인 표준화 작업

표준 교육 콘텐츠에 관한 논의는 이미 시작되었다. 2026년 1월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에서 열린 한국수의교육학회 학술세미나에서는 동물보건사 교육을 다룬 두 편의 연구가 나란히 발표되었다.

한국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가 진행한 표준 교육과정 개발 연구는 동물간호, 소통, 생명 존중, 역량개발, 전문성 등을 키워드로 하는 6대 핵심역량과 5대 학습성과를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공필수 14과목과 전공선택 15과목으로 이루어진 표준교육과정안을 구축하였다. 같은 자리에서 발표된 졸업역량 비교 연구는 미국의 수의테크니션과 영국·호주의 수의간호사가 졸업역량을 중심으로 양성된다는 점에 주목하여 세 나라의 졸업역량을 10개 영역으로 재구성한 뒤, 국내 적용을 위한 6개 역량 영역을 제안하였다. 동물간호, 검사 및 치료지원, 동물복지 및 공중보건, 전문직 정체성, 의사소통 및 수의료팀, 자원관리 및 운영지원이 그것이며, 양성기관 교수 20명과 재학생 126명, 임상 현장의 수의사 5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이 근거로 쓰였다.

평가인증 기준도 손질을 앞두고 있다.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은 2025년 9월 공청회에서 개정안을 공개하였는데, 현행 9개 부문·35개 항목·120개 평가사항(필수 35개)을 8개 부문·23개 항목·71개 평가사항(필수 19개)으로 줄이는 안이다. 평가사항을 줄이고 명확히 하여 피평가기관의 부담을 덜면서 완전인증 기준은 강화해 변별력을 개선하려는 취지이며, 2년제부터 4년제까지 다양한 학제를 포괄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개정 배경으로 제시되었다. 이르면 2026년 상반기에 공고한 뒤 2년의 유예기간을 둘 예정이다.

> **그럼에도 남는 공백**
>
> 진행 중인 두 연구는 모두 **동물보건 계열**을 대상으로 한다. 산업 계열의 교육 기준은 여전히 논의 밖에 있다. 또한 실습 교육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없다는 지적이 현장에서 제기되었는데, 법적으로 요구되는 실습을 개별 교수의 인적 관계로 확보하는 구조는 표준화의 걸림돌이 된다. 표준교육과정과 평가인증 기준이 어떻게 연결될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연결 방식을 정하는 이 단계가 계열 구분 논의를 넣을 수 있는 시점이다.

Ⅷ. 표준 교육 콘텐츠 개발의 방향

1. 계열 구분에 바탕을 둔 설계

표 3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동물보건학과 계열과 동물산업학과 계열은 교육 목표, 대표 교과목, 연계 자격, 진로, 평가인증 대상 여부에서 뚜렷이 갈린다. 따라서 표준 콘텐츠를 하나의 틀로 만들어 모든 반려동물 관련학과에 똑같이 적용하려는 접근은 적절하지 않다. 동물보건학과 계열에는 국가자격 시험과목과 이어지는 임상 기초 및 간호 실습 내용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동물산업학과 계열에는 펫푸드, 용품 개발, 훈련, 미용, 창업 실무 등 산업 현장과 이어지는 내용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특히 동물산업학과 계열은 평가인증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교육 수준을 살피는 외부 장치가 사실상 없는 상태이다. 산업 규모가 커지고 펫푸드와 펫테크 분야가 빠르게 성장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이 계열의 교육 콘텐츠를 다듬는 일은 동물보건 계열 못지않게 시급하다. 다만 이 계열에는 국가자격이라는 공통의 목표점이 뚜렷하지 않으므로, 자격 취득을 기준으로 삼기보다 산업 현장의 직무를 기준으로 삼는 접근이 적합하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이 모듈형 능력단위 구조를 갖추고 있어, 이 구조를 참고해 직무 단위로 콘텐츠를 나누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다. 여기에 2026년 제정된 육성법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조항이 더해지면, 산업 계열에도 교육 수준을 살피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여지가 생긴다.

2. 역량을 기준으로 삼는 구성 방식

콘텐츠를 구성하는 방식으로는 역량바탕교육 모형을 참고할 만하다. Frank 등(2010)은 역량바탕교육이 교육 기간이나 이수 학점이 아니라 학습자가 도달해야 할 성과를 기준으로 교육을 짜는 접근임을 정리하였고, Albanese 등(2010)은 역량바탕 교육과정을 실제로 구축할 때 따르는 어려움과 이점을 함께 검토하였다. 수의 분야에서는 Bok 등(2011)이 수의사의 역량 틀을 개발하고 타당성을 확인하였으며, 미국수의과대학협회는 이를 동물간호 분야로 넓힌 모형을 별도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모형은 교과목 이름이 아니라 졸업 시점에 갖추어야 할 역량을 기준으로 삼으므로, 교과목 명칭이 대학마다 다른 국내 상황에서 공통 기준을 세우는 데 특히 적합한 틀로 볼 수 있다. 앞서 살핀 국내 졸업역량 연구가 6개 역량 영역을 제안한 것도 같은 맥락에 있다. 다만 Caverzagie 등(2017)과 Nousiainen 등(2017)이 지적하였듯 역량바탕교육의 도입에는 교육과정 구조와 평가 방식의 전면적 조정, 교수자 연수 등이 뒤따라야 하므로, 국내 적용에서도 단계를 나누어 접근할

필요가 있다.

3. 합격률 자료 공표 방식의 개선

일본이 신졸자 합격률을 따로 공표하는 것과 달리 국내에서는 응시자 구성을 나눈 합격률이 공표되지 않는다. 이는 단순한 통계 공개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양성기관의 교육 성과를 살피려면 해당 기관을 갓 졸업한 응시자의 성취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 공표되는 전체 합격률만으로는 이를 가려내기 어렵다. 표준 교육 콘텐츠를 개발한 뒤 그 효과를 확인하려 할 때에도 같은 제약이 따른다. 따라서 콘텐츠 개발과 함께 신졸자 및 기관별 합격률 자료의 공표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4. 인증제도와 교육 콘텐츠의 연계

Chiavaroli 등(2023)은 여러 전문직 교육 분야의 인증 방식을 검토하여, 인증 모형이 교원·시설·교육과정 등 투입 요소를 살피는 방식과 학습자가 도달한 성과를 살피는 방식으로 나뉘며 후자로 무게가 옮겨가는 흐름이 있음을 정리하였다. 이 구분에 비추어 보면 국내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은 전임교원 확보율, 실습실 안전관리 등 투입 요소를 살피는 성격이 뚜렷하다. 반면 미국 CVTEA는 투입 요건과 함께 졸업생이 갖추어야 할 필수 술기 목록을 인증 점검 도구로 함께 두어, 공통 기준과 설계 자율성을 나란히 담고 있다.

국내 평가인증 요령도 최소 요건을 정하고 있으나, 각 요건이 교육 내용의 깊이와 직접 이어지지는 않는다. 표준 교육 콘텐츠가 마련된다면 인증 기준에서 참조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가 생기므로, 인증제도와 콘텐츠가 서로를 뒷받침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 마침 평가인증 기준 개정안이 2년의 유예기간을 앞두고 있어, 표준교육과정 연구 결과를 반영할 시간적 여유도 있는 편이다. 영국 사례를 다룬 Vivian 등(2023)의 조사에서도 교육이 실무 준비에 미친 영향에 대한 졸업생의 평가가 교육과정 개선의 근거로 쓰인 바 있어, 콘텐츠 개발 이후 졸업생 대상 조사를 함께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한편 4년제 학과의 인증 기간 문제도 함께 살펴야 한다. 완전인증 기간이 3년이어서 4년제 학과는 신입생이 졸업할 때까지 인증 유지가 보장되지 않는 구조적 제약이 지적되어 왔다. 표준 콘텐츠를 갖추어 운영하는 기관에 대해 인증 기간을 달리 적용하는 방안 등을 함께 논의한다면, 콘텐츠 도입 유인을 높이면서 학생의 불이익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IX. 추진 방안

이상의 검토를 바탕으로 네 단계의 추진 방향을 제안한다.

첫째,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축산과학원, 대학, 산업계가 함께하는 협의체를 두어 콘텐츠 개발의 범위와 우선순위를 정한다. 2026년 제정된 육성법에 따라 5년 주기 육성계획이 세워지므로, 협의체의 논의 시점을 이 계획의 수립 일정과 맞추면 정책 반영이 수월해진다.

둘째, 콘텐츠를 동물보건 계열과 동물산업 계열로 나누고, 각 계열 안에서 공통 핵심모듈과 기관별 선택모듈로 구성한다. 동물보건 계열의 핵심모듈은 자격시험 4개 과목 구조와 졸업역량 영역에 맞추고, 동물산업 계열은 직무 단위로 구성한다. 선택모듈을 함께 두는 이유는 기관마다 지역 산업 여건과 실습처가 다르기 때문이며, 공통 기준과 설계 자율성을 나란히 두는 미국 CVTEA의 방식과도 맞닿는다.

셋째, 개발 재원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등 이미 마련되어 있는 산학협력 재정사업과 연결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지역 동물병원과 산업체를 실습처로 묶는 설계를 함께 담으면, 현장에서 제기된 실습 지원 문제를 일부 덜어낼 수 있다.

넷째, 핵심 과목부터 시범 개발하여 일부 양성기관에 적용해 본 뒤 그 결과를 반영해 다듬고 넓히는 단계별 방식을 취한다. 평가인증 기준 개정안의 유예기간과 보조를 맞추면, 개정된 인증 기준이 시행되는 시점에 표준 콘텐츠가 함께 자리 잡도록 할 수 있다.

X. 맺으며

반려동물 연관산업은 국내외 모두에서 국가전략산업급으로 커지고 있으며, 2026년 육성법 제정으로 이를 뒷받침할 법과 제도의 틀도 갖추어졌다. 그러나 인력을 기르는 교육 현장은 학과 수의 빠른 증가, 학과 명칭의 혼재, 4개 시험과목에 345개 교육과정이 대응하는 교과목명의 난립, 동물보건 계열과 동물산업 계열의 불분명한 구분, 46.5%에서 87.5%까지 등락한 자격시험 합격률 등 여러 지점에서 기준이 자리 잡지 못한 모습을 보인다.

미국 CVTEA가 공통 기준과 설계 자율성을 함께 담아 인증을 운영하고, 일본이 신졸자 합격률을 따로 공표하여 양성기관의 성과를 살필 수 있게 한 사례는 국내 제도 개선에 참고가 된다. 동물보건 계열과 동물산업 계열을 구분한 표준 교육 콘텐츠를 마련하고, 이를 평가인증 및 자격시험 자료 공표 방식의 개선과 함께 다룬다면, 학생의 진로 예측 가능성과 산업계의 인력 신뢰도를 함께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검토의 제한점

이 글은 공개자료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었으므로 몇 가지 제한이 따른다.

첫째, 대학 교육과정 자료는 각 대학 누리집에 공개된 범위에 한정되어 강의계획서 수준의 실제 운영 내용까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둘째, 평가인증 결과는 연도별 공고를 개별적으로 확인하였으나 공고 시점과 적용 연도의 대응 관계가 자료마다 달리 표기되어 있어 연도별 추이를 단정하기 어려웠다.

셋째, 자격시험 합격률은 응시자 구성이 공표되지 않아 교육 성과와의 관계를 직접 해석하기 어렵다.

넷째, 산업 규모 전망치는 기관마다 추정 방식이 달라 수치에 차이가 있다. 앞으로 양성기관 교육과정에 대한 전수 조사와 졸업생 대상 추적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보다 정밀한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참고자료 및 출처

가. 법령 및 정부 자료

1.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의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https://www.law.go.kr
2. 국가법령정보센터.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5-87호, 2025. 8. 21. 일부개정).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63306
3. 농림축산식품부. 2025년도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계획 공고(제2025-361호). https://www.mafra.go.kr/bbs/home/791/589819/download.do
4. 농림축산식품부.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시행 보도자료. https://www.mafra.go.kr/home/5109/subview.do
5. 기획재정부.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방안 발표(관계부처 합동, 2023. 8. 9.).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65308&menuNo=4010100
6.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시스템. 시험과목·응시자격·유사 교과목 인정 안내. https://vt-exam.or.kr/
7. 교육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 추진 계획. 2023.

나. 산업 및 통계 자료

8. 나라살림연구소.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현황. https://www.narasallim.net/project/1280
9. 데일리벳. 국내 반려동물 시장규모 8.5조원 추산, 2032년에는 21조원. 2024. 6. 6. https://www.dailyvet.co.kr/news/industry/214784
10. 데일리벳. 2025년 국내 반려동물 양육가구 비율 29.2%, 역대 최대. 2026. 2. 19. https://www.dailyvet.co.kr/news/policy/273697
11.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 매뉴얼.

다. 제도 및 교육 관련 보도

12. 데일리벳. 반려동물산업 육성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26. 2. 13. https://www.dailyvet.co.kr/news/policy/273439
13. 데일리벳. 제5회 동물보건사 시험에 554명 합격, 시험합격률 62.5%. 2026. 2. 20. https://www.dailyvet.co.kr/news/vt/273927
14. 데일리벳. 제5회 동물보건사 시험 시행, 총 979명 원서접수. 2026. 2. 9. https://www.dailyvet.co.kr/news/vt/272848
15. 데일리벳. 동물보건사 졸업역량 확립해야, 표준교육과정 가시화. 2026. 1. 28. https://www.dailyvet.co.kr/news/vt/271528
16. 데일리벳.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기준 손본다. 2025. 9. 30. https://www.dailyvet.co.kr/news/vt/258846
17. 데일리벳. 세명대·연성대·영남이공대 등 15개 학교, 동물보건사 평가인증 획득. 2025. 12. 18. https://www.dailyvet.co.kr/news/vt/267256
18. 데일리벳.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시험 어떻게? 필기 5과목, 1·2급 구분. 2024. 2. 6. https://www.dailyvet.co.kr/news/policy/204437
19. 한국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 https://kavnue.org/

라. 학술 문헌

20. Albanese MA, Mejicano G, Anderson WM, Gruppen L. 2010. Building a competency-based curriculum: the agony and the ecstasy. Adv Health Sci Educ Theory Pract 15: 439-454.
21. American Association of Veterinary Medical Colleges. 2025. Competency-based veterinary education: nursing (CBVE-Nursing). AAVMC, Washington DC.
22. American Veterinary Medical Association. 2026. CVTEA accreditation policies and procedures: standards. AVMA, Schaumburg, Illinois.
23. Bok HG, Jaarsma DA, Teunissen PW, van der Vleuten CP, van Beukelen P. 2011.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competency framework for veterinarians. J Vet Med Educ 38: 262-269.

24. Caverzagie KJ, Nousiainen MT, Ferguson PC, Ten Cate O, Bhanji F, Glasgow NJ, Marks MB, Harris KA. 2017. Overarching challenges to the implementation of competency-based medical education. Med Teach 39: 588-593.
25. Chiavaroli N, Prescott-Clements L, Nicholls J, Mitchell P, Reid K. 2023. Accreditation approaches for professional education programs: towards best practice. J Vet Med Educ 51: 3-13.
26. Frank JR, Snell LS, Ten Cate O, Holmboe ES, Carraccio C, Swing SR, et al. 2010. Competency-based medical education: theory to practice. Med Teach 32: 638-645.
27. Nousiainen MT, Caverzagie KJ, Ferguson PC, Frank JR. 2017. Implementing competency-based medical education: what changes in curricular structure and processes are needed? Med Teach 39: 594-598.
28. Vivian SR, Dumbell L, Wilkinson K. 2023. Perceptions of how education has prepared UK veterinary nurses for their professional role. J Vet Med Educ 50: 429-438.

재학생이 바라본 반려동물연관산업 교육 활성화 방안

더 많은 교육보다, 더 좋은 연결이 필요합니다

반려동물연관산업 교육발전 방향 심포지엄 | 원광대학교 3학년 최정욱

시대적 배경

우리가 사는 시대의 변화

29.2%

2025년 기준, 우리나라 가구의 29.2%가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출처:**농림축산식품부, 「2025년 반려동물 양육현황 조사」(국가승인통계), 2026**

약 3가구 중 1가구가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시대

반려동물은 단순히 '키우는 동물'을 넘어 가족의 구성원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반려동물 관련 상품과 서비스, 전문직업의 범위까지 넓히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문화의 변화 → 산업의 확장 → 새로운 교육과 진로의 필요



CHAPTER 1

Part 1.
산업은 이미 변하고 있다

우리가 공부하는 동안, 반려동물산업의 영역은 어디까지 넓어지고 있을까?

산업 지형도

반려동물산업의 다양화

학생들에게 익숙한 분야

- 동물병원 · 동물보건
- 미용 · 훈련
- 행동교정

넓어지고 있는 분야

- 펫푸드 · 펫헬스케어
- 보험 · 장례 · 돌봄
- 펫테크 · 플랫폼 · 서비스

정부가 주목하는 육성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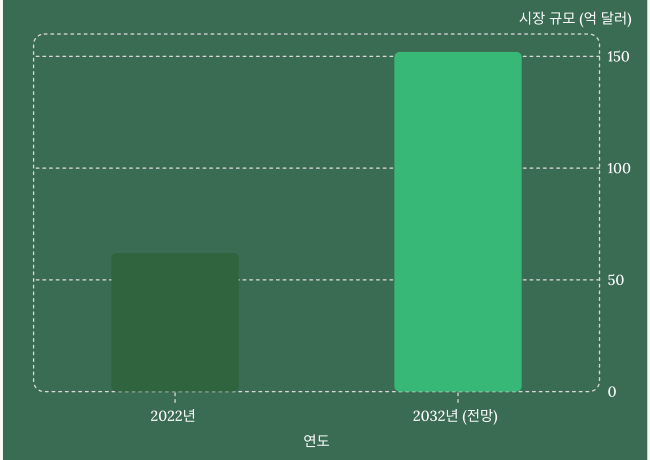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에서 펫푸드·펫헬스케어·펫서비스·펫테크를 4대 주력산업으로 선정했습니다.

국내 반려동물 연관산업 시장은 2022년 8조 원 규모이며, 2032년에는 152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처럼 **산업이 확대될수록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어떻게 준비하고 인증할 것인지가 중요해집니다.**

산업 데이터

숫자로 보는 반려동물산업의 성장

국내 시장 규모 전망



연평균 성장률 9.5% 전망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 2023

산업 현황 (2024~2025년 기준)

29.2%

반려동물 양육가구 비율 (2025년 기준)

23,565개

반려동물 영업장 수 (2024년)

29,305명

반려동물 산업 종사자 수 (2024년)

전년 대비 영업장 +14.5%, 종사자 +14.9% 증가

출처: 농림축산검역본부, 「2024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 2025 / 농림축산식품부, 「2025년 반려동물 양육현황 조사」, 2026

반려동물산업은 관심의 영역을 넘어 실제 시장과 일자리의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산업이 커질수록 교육과 전문성 인증도 더 구체적이고 다양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산업의 요구

산업의 변화 속에서 학생에게 필요한 준비

전문성

동물에 대한 지식과 함께 새로운 산업을 이해하는 역량

다양한 진로 가능성

동물병원·미용뿐 아니라 펫푸드·펫테크·헬스케어·서비스·창업 등으로 시야 넓히기

현장과 연결되는 경험

학교에서 배운 내용이 실제 기업과 직무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경험하기



CHAPTER 2

Part 2.

산업과 학생을 연결하는 길은 충분한가?

3학년 재학생이 진로를 고민하며 느낀 것

재학생의 시선

3학년이 되면서 진로가 현실적인 고민이 되었습니다

> "저도 3학년이 되면서 졸업 후 진로를 구체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업에서는 여러 분야를 배우고 있지만, 막상 어떤 기업이 있고, 어떤 직무가 있으며,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찾아보려니 정보가 한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배우는 것과 실제 산업 사이를 누가 연결해줄 수 있을까?"

핵심 문제

재학생이 느끼는 4가지 연결의 어려움

① 교육 ↔️ 산업

학교에서 다양한 내용을 배우더라도, 그것이 실제 어떤 기업과 직무로 연결되는지 직접 경험할 기회는 더 필요합니다.

② 대학 ↔️ 대학

다른 대학 학생들과 서로의 경험과 산업정보를 나눌 수 있는 지속적인 교류 기회가 더 많아졌으면 합니다.

③ 학생 ↔️ 기업

어떤 기업에 어떤 직무가 있고, 그 직무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 수 있는 기회가 더 필요합니다.

④ 아이디어 ↔️ 창업

반려동물 분야의 아이디어를 가진 학생이 실제 창업 과정을 경험해보고, 기존 지원사업까지 연결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합니다.

더 많은 교육보다, 더 좋은 연결이 필요합니다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이 산업정보, 기업, 직무경험, 취업과 창업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육	산업정보	교류
전문성	취·창업	



CHAPTER 3

Part 3.

재학생이 제안하는 활성화 방안

새로운 제도가 아닌 학생과 산업이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 창출

제안 01

학교의 경계를 넘어 함께 배우는 기회

왜 제안하는가?

반려동물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마다 교수진의 전문 분야와 교육과정, 학생들의 활동과 경험이 다릅니다.

이러한 차이는 오히려 학생에게 좋은 학습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대학이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아는 것 자체가 학생에게는 새로운 진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 대학 간 연합 워크숍 · 세미나
- 재학생 참여형 반려동물산업 세미나
- 기업·전문가와 함께하는 공동 특강
- 대학 간 학생 아이디어 발표회

제안 02

이미 있는 창업지원사업을 학생과 연결해주세요

사실, 지원은 있습니다

2026년 농식품 벤처육성 지원사업은 '펫테크'를 지원 분야로 두고, 반려동물 식품·사료, 질병 예방·관리·치료, 행동 분석·복지 향상 제품·서비스 등을 지원 대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2026 농식품 창업콘테스트에도 '반려동물' 분야가 포함되어 있으며 예비창업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출처: 농식품창업정보망, 2026년 농식품 벤처육성 지원사업

재학생의 제안

새로운 창업지원사업을 만드는 것만큼, 대학 단계에서 학생과 기존 창업지원사업을 연결해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창업교육 · 아이디어 발굴

↓

전문가 멘토링

↓

시제품 제작

↓

정부·지자체·창업지원기관의 기존 사업으로 연결

> "지원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학생에게 그 지원까지 가는 길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자격 현황 분석

국가자격제도는 자리 잡고 있지만, 산업 전체를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격	현황
동물보건사	2026년 제5회 시험 — 응시 886명, 합격 554명, 합격률 62.5%
반려동물행동지도사	2024~2025년 누적 합격자 634명 (1회 356명, 2회 278명)
반려견스타일리스트	국가공인 민간자격으로 운영 중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026 / 2024 / 2025

현재 자격체계의 한계

① 적용 영역의 한계

현재 국가자격과 공인자격은 의료·보건, 행동·훈련, 미용 영역에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② 신산업 진로의 준비 기준이 불명확

펫푸드, 펫테크, 장례, 보험, 플랫폼·서비스 분야에서 학생이 어떤 역량을 준비해야 하는지 표준적인 경로가 상대적으로 덜 명확합니다.

③ 전문성 인증 방식의 다양성 부족

산업은 커지고 직무는 세분화되는데, 전문성을 보여주는 방식은 아직 일부 영역에 중심이 있습니다.

자격의 숫자를 무조건 늘리자는 것이 아니라, 산업이 다양해지는 만큼 직무별 전문성을 인정하는 방식도 다양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자격 + 국가공인 민간자격 + 산업계 인증 + 대학·기업 공동 역량인증 → 다층적인 전문성 인증체계 검토 필요

직접 비교·분석

국가자격증과 민간자격증의 직접 비교

산업 영역	대표 자격	구분	전문성 확인이 어려울 때	기대효과
동물의료·보건	동물보건사	**국가자격**	업무역량 판단 어려움	직무 기준 명확화
행동·훈련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부적절한 지도 가능	전문성 신뢰 향상
미용	반려견스타일리스트	국가공인 민간자격	실기·안전 수준 편차	실무 기준 표준화
펫푸드·영양	펫푸드전문영양사 등	등록 민간자격	정보·상담 품질 편차	영양 전문성 강화
장례	반려동물장례지도사 등	등록 민간자격	서비스 품질 편차	윤리·서비스 기준 마련
돌봄·펫시팅	펫시터 등	등록 민간자격	안전·돌봄 수준 편차	돌봄 기준 표준화
펫테크		직무역량 중심	역량 판단 어려움	융합역량 기준 마련
보험·플랫폼		직무역량 중심	상담·서비스 편차	직무 기준 명확화

산업이 다양해질수록, 전문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준도 함께 다양해져야 합니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 2023 / 농림축산식품부·민간자격정보서비스

제안 04

교육이 실제 산업을 만나는 경험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

교육의 범위는 이미 넓어지고 있습니다

행동 · 미용 · 동물보건 등 익숙한 분야와 함께 창업, 펫푸드, 동물매개치료, 캡스톤디자인 등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교육이 실제 산업을 만나는 경험으로 이어졌으면 합니다.

강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 펫테크 수업 → 실제 펫테크 기업 만나보기
- 창업 수업 → 창업 아이디어 발표와 지원사업 연결
- 펫푸드 수업 → 관련 기업·현직자·제품개발 과정 경험
- 헬스케어·보험·장례·서비스 분야도 기업과 직무까지 연결

교육과목의 수보다 '교육 이후 무엇과 연결되는가'가 중요합니다.

제안 03

산업이 다양해질수록 '전문성'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현재 운영 중인 자격제도

국가자격

- 동물보건사
-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공인 민간자격

- 반려견스타일리스트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 민간자격정보서비스

재학생의 제안

현재 국가자격은 동물보건사와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공인 민간자격은 반려견스타일리스트가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육성하는 산업은 펫푸드·펫헬스케어·펫서비스·펫테크 등으로 확대되고 있어, 전문성을 확인하는 기준도 더 다양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산업이 다양해질수록 모든 직무를 하나의 국가시험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동물보건, 행동, 미용처럼 비교적 제도화된 분야가 있는 반면, 펫푸드, 펫테크, 보험, 장례, 돌봄, 플랫폼·서비스 분야는 직무 특성에 맞는 전문성 기준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합니다.

> "현재 국가자격은 동물보건사와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공인 민간자격은 반려견스타일리스트가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육성하는 산업은 펫푸드·펫헬스케어·펫서비스·펫테크 등으로 확대되고 있어, 전문성을 확인하는 기준도 더 다양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제안 05

졸업 전에 산업을 직접 만나볼 기회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업체 탐방, 특강, 멘토링, 학술대회 등의 경험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이 일회성 행사를 넘어 학생의 진로 탐색 과정으로 계속 이어지면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에게 필요한 연결의 흐름

- 기업탐방
  "이런 회사도 있구나"를 아는 첫 단계
- 현직자·졸업생 멘토링
  "이 일을 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지?"
- 단기 직무체험·인턴십
  "나와 잘 맞는 직무인가?"
- 산업체 프로젝트·캡스톤
  학교에서 배운 것을 실제 문제에 적용
- 취업 또는 창업
  배움이 실제 진로로 이어지는 마지막 단계

현장경험의 목적은 단순한 스펙이 아니라, 학생이 자신의 진로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야 할 연결

학생

을 중심으로

교육 새로운 산업을 배우는 기회	산업정보 어떤 기업과 직무가 있는지 아는 기회
교류 다른 대학·기업·전문가를 만나는 기회	전문성 배운 역량을 인정받는 기준
취업·창업 배움을 실제 진로로 연결하는 기회	

핵심 메시지

반려동물연관산업 교육 활성화는 새로운 과목을 계속 추가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학생이 배운 것을 산업과 진로로 연결할 수 있을 때 교육의 가치가 더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교육 → 경험 → 연결 → 진로

2026년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7년 3월 11일 시행 예정이며, 전문인력 양성·정보교류·벤처창업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의 반려동물산업 교육에서

'무엇을 더 가르칠까?'와 함께
'학생이 배운 것을 어디에서 경험하고, 어떻게 자신의 진로로 연결할까?'도 함께 고민했으면 합니다.

더 많은 교육보다, 더 좋은 연결이 필요합니다.

학교와 산업, 대학과 대학, 학생과 기업, 그리고 아이디어와 기회가 연결될 때 학생은 더 다양한 반려동물산업의 미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원광대학교 반려동물산업학과 3학년 최정욱 |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